

오늘의 물 부족, 내일의 물 기근 경고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90년만의 최악의 가뭄의 소용돌이가 마침내 논바닥을 갈라 놓은 가뭄을 원망하며 농약을 마신 농부가 이 세상을 하직했다는 보도가 지난 6월 7일자 신문에 실리기에 이르렀다. 그러고도 10여 일 간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목 타는 상황에서 온 나라의 신경은 가뭄 난리에 쏠리고 있다. 이 글이 읽힐 때쯤에는 뒤바뀔지 모르는 홍수 난리가 닥치기 전에 농촌의 가뭄으로 인한 다급한 영농 문제가 해결되고 홍수를 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지기를 바란다. 이러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해마다 연이어서 가뭄과 홍수 난리를 되풀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줄기를 말리고 저수지의 바닥을 드러내게 하는 금번 가뭄을 겪으면서 우리가 보다 실감나게 터득한 것은 물 부족으로 식량 생산이 감소되어 굶주림과 영양 부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북한과 아프리카의 재난을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물 관리 문제의 근원적 대책

이 시급하다.

아무런 제한 없이 쓴다는 뜻으로 ‘물 쓰듯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물이 풍족했던 시대는 막이 내려지고 지금 세계는 물 부족이 아닌 물 기근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물 기근으로 마실 물조차 구하기가 어려운 지경이다. 1998년도 통계에 의하면 물 부족으로 인한 난민이 2,500만 명을 헤아리고 있어서 역사상 처음으로 전쟁 난민의 수를 웃돌고 있으며 현재 마실 물이 부족해서 매일 죽어가는 어린이 수만도 5,000명이 넘고 있다. 날이 갈수록 물 부족 문제는 심각해져 2025년에는 세계 인구의 반이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물 부족 현상은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가뭄,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물 수요 증가와 오폐수 증가로 수질이 오염되어 가용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한강의 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으며 쓸 수 없는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 부족은 식량 생산 감축, 경제 침체 그리고 생태계 파괴 등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금세기가 해결해 내야 하는 우선 과제이다. 21세기의 국제 분쟁의 요인이 물 문제일 수 있다는 데서 물 전쟁이 예고되어 있는 상태이다.

유엔에서는 이렇게 심각해진 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이미 수차례 걸친 국제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02년도 9월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게 되어 있는 세계 지구정상회의(리우+10)에 앞서 오는 12월 3일에서 7일까지 독일의 본(Bonn)에서 국제담수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f Freshwater)가 독일 정부와 유엔의 공동 주최로 열리게 된다.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된다. 2003년도 세계물문제 포럼(World Water Forum)이 일본 교토에서 준비되고 있는 데

서도 알 수 있다.

유엔은 물 부족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범세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선포한 바 있다. 금년도 제8회 세계 물의 날을 기해 유엔은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130여 개국의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제2차 세계 수자원 포럼과 각료 회의를 개최하고 <21세기 물의 안보를 위한 헤이그 각료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선언문은 ① 수자원 가치의 가격화 ② 물 관리 구조의 합리화 ③ 홍수 가뭄 등의 재난 관리 ④ 국제적 물 분쟁 지역에서의 국제 협력 증진 ⑤ 기본적 물 수요의 충족 등 물 부족 해결을 위한 7대 공동 과제를 담고 있다. 각료 회의에서는 특히 세계 인구가 60억 명에서 향후 25년 내에 80억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이 절실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선언문은 구속력은 없으나 국제적인 물 관리 대책에 관한 최초의 국제 문서로 선언문에 담긴 원칙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환경부가 1996년부터 3월 한 달을 물의 달로 정한 바 있다. 금년도 '세계 물의 날' 기념 행사에서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물 정책을 기존의 공급 위주에서 수요 관리 위주로 전환하면서 ① 노후 수도관을 교체해서 현재 18%로 추정되는 누수율 누수율을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0% 이하로 ② 2004년까지 전국 1100만 가구에 절수기 설치 ③ 일정 수준 이상의 건물에는 물을 재활용하는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이 행사에 참여한 4800여 명의 환경 단체 관계자 및 시민들은 ① 가정의 수도꼭지와 변기 수조에 절수 기기를 부착하고 ② 기업체는 물 소비량과 오염을 감축하는 생산공정을 선택하

며 ③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 절약 목표를 정해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17개항의 ‘물 사랑 실천 선언’을 채택하기도 했다.

국내외적으로 천명되고 있는 물 대책과 관련한 선언들을 살펴보면 세계가 점차 물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더해 가고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 선언들이 한낱 말 잔치에 끝나지 않기 위해 우리 모두는 응분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우리 후세에게 ‘물 걱정’ 하는 세상을 물려줄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의 21세기 각 국가 수자원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물 부족 국가(149개국중 78위, 북한은 76위)로 분류되고 있다. 물 부족 기준은 1인당 연 $1,700\text{m}^3$ 내외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이용 가능한 수자원이 1955년 $2,492\text{m}^3$ 에서 1990년도에는 $1,470\text{m}^3$ (2분의 1로 감소)로 줄어들었고 2025년에 이르면 최고 $1,295\text{m}^3$, 최저 $1,100\text{m}^3$ 로 물 부족 국가도 아닌 물 기근 국가($1,000\text{m}^3$)로 접어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유네스코 소시스(UNESCO Sources)』의 1996년도 11월호에 실렸던 1995년도의 물 압박 지도를 보면 물 부족이 없는 국가군으로 캐나다, 러시아, 호주, 인도네시아를 그리고 중국, 일본, 태국, 프랑스, 영국 등은 물 공급량의 확대를 필요로 하는 나라로 분류하고 있다. 물이 극히 희귀해 수입에 의존하거나 바닷물을 정수해 쓸 수밖에 없는 국가들로서 이란, 이라크,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바로 물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이들 국가군에 속해 있다. 놀라운 사실은 아니다. 1990년 초에 이미 우리 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면서 물 기근 국가가 되리라는 경고가 있었기 때문

이다.

우리나라는 몬순기후대에 위치, 연평균 강우량 1,283mm의 약 3분의 2가 우기인 6월 중순에서 9월 하순에 편중되어 있고 하천의 경사가 가파르고 지질 구조 또한 물 침투율이 낮아 빗물이 짧은 시간 내에 바다로 유출되고 만다(윤용남, 2001.6.). 또한 우리나라의 수질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는가 하면 수량 확보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데 반해 국민의 물의 씹씹이는 가히 위험 수준에 달하고 있는 데서 물 문제 대책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정부로서는 21세기에 예상되는 가장 중요한 물 위기 극복을 위해 물 관리 종합 대책의 광범위한 재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물을 쓰고 있는 개인 소비자와 산업계의 물 소비 태도에 대한 반영도 요구된다. 심각한 물 부족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1인당 물 사용량은 일평균 395 l로서 OECD 국가 중(독일 132 l, 프랑스 281 l) 세계에서 가장 물을 많이 쓰고 있는 미국 다음으로 많이 쓰고 있다. 독일 국민에 비하면 3배의 소비를 하고 있는 데서 얼마나 물 낭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물 값이 싼 것도 그 원인이 되고 있다. 서울 기준의 수도 물 값은 프랑스의 7분의 1에 불과하다. 수도물의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환경부가 2000년 초에 발표한 물 절약 종합 대책에서 보면 한계에 부딪힌 댐 건설에 의한 공급 위주의 수자원 관리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의 수요 관리로 정책 방향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이다. 그 내용을 보면 2006년까지 수도 물 생산량(58억4천만 톤)의 13.5%인 7억9천만 톤을 절약하는 것을 목표로 10개의 물 절약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이것을

크게 구분하면 기술적인 수요 관리 방안으로서 누수 방지, 절수기 보급, 중수도 확대 등등을, 경제적 방책으로는 물 값의 현실화, 물의 효율적 이용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일, 그리고 비경제적인 대책으로는 대국민 홍보, 교육을 통한 범국민의 물 절약 캠페인에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뒤늦게나마 현실적인 대책 제시가 된 것은 다행이다.

인류 미래의 명암을 가름할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 기업,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 윤리의 필수 조건인 물을 비롯한 자연 자원에 대한 지금까지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원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는 것, 자원은 현재 세대인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 자정 능력도 무한대가 아니라는 사실에 눈을 떠야 한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고 농업과 공업을 위한 물 공급을 희망한다면 오늘의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의 소비 미덕의 생활 양식은 불가피하게 수정이 되어야 한다.

오늘의 세계의 화두는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이다. 지구 환경 문제가 아무리 거창하고 복잡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선 자리에서의 종이 한 장, 전기 한 등, 물 한 잔을 아끼는 등의 작은 실천에서 지구 환경은 보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 지구 환경 보전 운동의 표어가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로 되어 있다.

최근의 극심한 가뭄을 경험하며 물의 귀중함을 새삼 깨닫게 된다. 1998년도 9월 6일 KBS TV의 <정범구의 세상읽기>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노동의 새벽』의 저자 박노해 시인이 8년간의 수감 생활에서 풀려 나와 놀라워했던 세 가지 일 중의 하나가 500ml의 생수를 500원을 주고 사먹고 있는 일이라고 한 사실이 귀에 남아 있다. 물 값이 휘발유 값과 맞먹는 데 놀란 것

이리라. 지금은 휘발유 값을 치르더라도 사먹을 수 있는 물이 있어 다행이다. 앞으로 황금을 주고도 사 마실 수 없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데서 우리는 불안을 느낀다.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은 현세대만이 아닌 미래 세대에게도 남겨주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데서 맑은 물 정책 그리고 수자원 보전책이 중요한 것이다.

죽임을 넘어

살림

월간 살림 2001/7 · 150 · 등록 1988. 6. 18(라-3613) · 발행처 아우내재단 · 발행인 김정란 · 충남 천안시 병천면 산33 · ISSN 1227-4860 001

7 2001/통권 150호

대담 / 서준식 · 국가보안법 세상에서 인권위원회 세상으로

살림의 사상 / 국가보안법을 넘어 인권법의 시대로

조국 · 병전과 독재의 유산 국가보안법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곽노현 · 인권위법, '살림의 법'으로 만들기 위해

살림의 현장 / 박영숙 · 오늘의 물 부족, 물기근 경고